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에서 온 13학년 학생 박도현입니다. 저는 베라딘에서 5년동안 공부했고, 지난 시간동안 이 학교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영어가 서투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을때도, 같은반 학생들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었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배려해주며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주셨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많은 교내활동이 있고, 저도 오케스트라, 스포츠팀, 도서관 사서, 학생회 등, 많은 활동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구성된 학교의 교육시스템은 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과목에 흥미를 느끼는지, 그리고 상급반과 장학금제도는 저의 학업성취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저는 대학교에서 생명과학이나 약학대를 전공할 생각입니다. 베라딘에서 보낸 시간들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고, 이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저는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베라딘에게 감사하고, 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저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Dohyeon Grace Park, from Seoul, Korea and I'm year 13 this year. This is my 5th year in Baradene college and for the last five years, I've experienced countless things here. When I couldn't communicate well with others when I first came here, my classmates approached me first and became friends. Teachers were also considerate of students and asked if we needed any help.

Furthermore, the school offered lot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which I joined orchestra, sports teams, student librarian, committees, etc. The school's well-structured educational system helped me a lot when I was deciding my career in the future. It enabled me to realise the subject I'm interested in, and opportunities to raise my academic achievement, such as scholarship and advanced classes.

Based on these experiences, I'm considering majoring in health science or Pharmacy after graduation. I would never forget my time in Baradene and strongly believe that I wouldn't be able to improve this much if I didn't come to this school. So, I hope that my experience helps the students who are planning to study abroad. Thank you.